성모님의 마음을 담은 2018

성모기사

01

1월
봉헌기도

원죄 없으신 어머니 동정마리아님!
어머니께서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저를 원하시니
언제나 제 자신의 모든 것을 어머니께 봉헌하며
오늘 이 봉헌을 새롭게 합니다.

오, 저의 여왕, 교회의 어머니시여!
이 세상에 주님의 나라를 이루시려는
어머니의 사명에 제가 충실히 협력하기를
오로지 당신께 청합니다.

오, 원죄 없으신 마리아 성심이여!
오늘 제가 바치는 기도와 활동과 희생을 즐겨 받으시어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가 성모님과 함께 죄인들의 회개와
성화를 위해 기도하며 평화를 위해 일하게 하소서.

오,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님!
어머니께 도움을 청하는 저희와
어머니의 도움을 외면하는 이들,
특별히 교회를 적대시하는 이들과
어머니께 맡겨진 모든 이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아멘.

2018 1
http://ofmconv.or.kr/
MILITIA IMMACULATAE

1월을 시작하며 02
김용기

보나벤투라의 성 프란치스코 대전기 입문 06
한규희

마리아의 모성적 중재 11
권정대

말씀묵상 24
최창원

님 26
박영철

어머니, 잘 다녀오겠습니다! 27
신재희

하느님의 은총으로 지금의 내가 되었습니다. 36
김병훈

떠났는데도…변했는데도… 남아 있는 건 ???!!! 42
이연희

겨울 바닷가 46
김종국

신앙을 위협하는 여러 위험 48
구원모

함께하는 이모저모 55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루카 1,38)

그림 : 진동길 마리오 신부

1월을 시작하며

김용기 대건안드레아

'성모기사'를 읽는 모든 분께 새해 인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성모님을 닮은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 해가 되십시오."

신학교 3학년쯤의 일로 기억합니다. 신학원장 신부님이 형제들에게 각자 닮고 싶은 사람을 정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흔히 말하는 '롤모델(role model)'을 정해서 자기 성숙을 위해 노력하라는 뜻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얼마간 시간이 지났을 때, 형제들에게 누구를 롤모델로 정했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자고 하셨습니다. 사실 저는 그때 누구를 롤모델로 정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형제가 말했던 내용이 아주 인상 깊었고, 지금껏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 형제는 수도원 옆집의 기사 아저씨를 롤모델로 삼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아저씨는 수도원 형제들이라면 누구나 잘 아는 분이었습니다. 그 시절, 우리가 살던 혜화동 수도원은 주택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도원 바로 옆집에는 고급 수입차와 그 차를 모는 기사님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등교할 시간이면 그 아저씨는 나와서 차를 닦

거나 정비하고 계셨고, 항상 차고 앞에서 대기 중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분을 롤모델로 정한 형제는, 그렇게 자기 임무에 늘 최선을 다하고 준비되어 있는 모습 때문에 자신이 닮고 싶은 대상으로 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사실 그 형제의 말에 감동받았습니다. 그리고 왜 나는 저렇게 가까이 있는 분을 그냥 지나치고 살았을까 하며 반성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저 역시 수도회에 입회한 이후, 선배 수사님들 중에 닮고 싶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그분들을 저의 롤모델로 삼고 때로는 흉내 내듯 말하거나 행동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제가 수도자로 살아가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간혹 롤모델로 삼았던 분들에게 실망하여 닮고 싶은 대상이 바뀌기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스스로 교만했고, 어쩌면 그런 모습이 오히려 순수했다고 기억되기도 합니다.

제가 떠올린 기억은 어느새 20년이 훌쩍 넘은 과거의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물론 아직도 저는 누군가를 롤모델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혹시 후배 수사님들이나 다른 형제들에게 나는 과연 '닮고 싶은 수도자'일까 하는 물음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더 두려운 것은 혹시

다른 형제들이나 신자분들에게 실망을 안겨 주는 수도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충남 공주에 있는 마곡사라는 절에 가면 서산 대사의 시 한 수가 적혀 있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께서도 좌우명으로 삼으셨다는 시입니다.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 어지럽게 함부로 걷지 말라
오늘 내가 가는 이 발자취가 뒷사람의 이정표가 될 것이니

밤새 쌓인 눈으로 덮여 있는 수도원 마당을 바라보면 이 시가 떠오르곤 합니다. 그리고 이 시의 내용은 제가 앞서 말한 두려움과도 이어집니다.

1월은 한 해가 시작하는 달입니다. 그리고 그 첫날을 신앙인들은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로 시작합니다. 그 축일 안에는 나자렛의 한 시골 처녀가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영광을 얻기까지의 여정이 함축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누구나 잘 알고 있듯, 그분은 하느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부르심에 응답하셨습니다. 선택은 하느님께서 하셨지만, 성모님의 순명으로 비로소 구세주의 강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모님은 모든 신앙인에게 가장 훌륭한 롤모델이 되신 분입니다.

성탄 팔일 축제의 끝 날을 성모님의 대축일로 시작하면서 하느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합니다. 아마도 그것은 성모님을 닮고자 결심하면서 새해를 맞이하라는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모두 성모님을 닮아 가면서 다른 이들에게 또 다른 이정표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모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셨고, 우리는 그분처럼 하느님 구원 사업을 위해 부름 받은 이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비록 성모님과 삶의 자리는 다를지라도 삶의 목적이나 방향은 결코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8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아쉽고 부족했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그 기억들을 교훈 삼아 더 좋은 한 해를 만들어 가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부르심에 각자 합당하게 응답할 수 있도록, 성모님을 닮고자 노력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모님을 닮은 신앙인이 되십시오!"

꼰벤뚜알 프란치스코 수도회 신부
수도원장, 재속프란치스코회 국가영적보조

하느님을 향한 상승의 전기문학

보나벤투라의 성 프란치스코 대전기 입문

한규희 보나벤투라

이탈리아 움브리아주 아시시에 위치한 성 프란치스코 대성당은 지하 무덤, 아래층 성당, 위층 성당 총 3개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아래층 성당과 위층 성당의 벽면은 여러 프레스코화로 장식되어 있는데 위층 성당의 경우 지오토의 그림이 유명하다. 프란치스코 성인의 일화를 그린 이 그림들(총 28점의 프레스코화로 구성)은 보나벤투라가 집필한 성 프란치스코 대전기에서 영감을 받은 지오토가 그린 것이다. 프란치스코와 보나벤투라가 어떤 인물이고 또 대전기가 어떤 작품이기에 이렇게 그림으로까지 그려졌을까?

잘 알듯이, 프란치스코는 작은형제회의 설립자이고 보나벤투라는 작은형제회의 7대 총장이다.

먼저 프란치스코의 생애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프란치스코는 1181년 말 또는 1182년 초 스폴레토 계곡 기슭에 위치한 도시, 아시시에서 직물상이었던 피에트로 디 베르나르도네와 그의 아내 피카 부인에게서 태어났다. 산 조르조 성당에서 기본적인 교육을 받은 뒤, 수익이 좋은 상업에 종사하게 되었다. 프란치스코가 청년이었을 때는 그의 많은 친구처럼 영적인 것들에 관심을 기울이

기보다는 세속적인 욕망을 추구하고 있었다: "부모의 천박한 생활과 행실을 오랫동안 모방하여 그의 허영심과 교만함은 한층 심했다." 그러나 보나벤투라는 즉시 덧붙인다:

그러나 하느님 은총의 도움으로 그는 항상 향락할 수 있었으나 쾌활한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조차도 결코 정욕의 유혹에 따르지 않았다. 그와 함께 산 사람들은 약삭빠른 사업가들이었으며 그 자신 또한 매우 돈 벌기를 갈망했으나 부를 축적하는 것에는 마음을 두지 않았다. 청년이었을 때 이미 그는 하느님께서 그의 마음에 불어넣어 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아낌없는 동정심을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마음은 그가 성장하였을 때에도 그와 함께했으며 그의 마음을 자비심으로 가득 채웠기에 그는 복음에 귀 기울이기를 마다하지 아니했으며 특별히 하느님께 대한 사랑을 위해서라면 그에게 다가오는 모든 이에게 희사하기로 마음먹었다.(대전기 I, 1)

프란치스코는 기사로서의 영광을 꿈꾸며 1202년 이웃 도시 페루자와의 전쟁에서 아시시를 위해 싸우고자 떠났다. 그러나 사로잡혀 포로가 되었고, 일 년 뒤 건강이 악화된 상태에서 석방되었다. 회복에는 1년이라는 시간이 더 걸렸다.

그의 회개 여정은 1204년과 1208년 사이, 이어지는 꿈

과 만남, 예를 들어, 산 다미아노 성당에서 주님의 부르심, 나병 환자들과의 만남 그리고 아시시의 주교와 아버지 앞에서 그의 옷 벗음을 통해 시작되었다. 프란치스코 스스로 그의 회개와 관련하여 가장 큰 사건일지도 모를 일화를 자신의 유언에서 언급한다:

주님이 나 프란치스코 형제에게 이렇게 회개생활을 시작하도록 해 주셨습니다: 내가 죄 중에 있었기에 나병 환자들을 보는 것이 나에게는 너무나 역겨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친히 나를 그들에게 데리고 가셨고 나는 그들 가운데서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한테서 떠나올 때는 역겨웠던 바로 그것이 내게 있어 몸과 마음의 단맛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얼마 있다가 나는 세속을 떠났습니다.(유언 1-3)

프란치스코는 자신의 소명이 당시의 영적 차원의 쇄신임을 분명하게 이해하였다. 그는 그리스도와 완전한 일치를 위한 삶의 양식으로 가난과 겸손을 선택하였다. 프란치스코는 그의 회개에 감명받은 첫 동료들을 맞이하기 시작하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형제들의 수는 점차 증가하였다. 그래서 프란치스코는 "자신과 동료들을 위한 짧고도 간결한 생활 규칙"을 썼고 인노첸시오 3세로부터 구두 인준을 받았다.(1209) 이렇게 프란치스코 수도회가 공식적으로 시작하였다.

이 구두 인준 뒤, 수도회는 빠르게 성장하였다. 계속되는 성장으로 인해, 프란치스코는 작은 형제들을 위한 회칙을 작성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그는 1221년 24장으로 구성된 회칙 (FF 1-73)을 썼지만, 이 회칙은 교황의 인준을 받지 못하였기에 1223년 또 하나의 회칙 (FF 73a-109a)을 작성해야만 했다. 1223년 회칙은 그해 11월 교황 칙서 「Solet annuere」를 통해서 호노리오 3세에 의해 인준되었다.

수도회의 발전과 함께, 그의 영성은 여러 어려움(개인적인 것과 공동체적인 것)을 거쳐 성숙되었다. 프란치스코는 주님께 그의 전 존재를 바쳤고 스스로가 곧 살아있는 기도였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와의 일치에 도달하였다. 그는 세상을 떠나기 2년 전, 전 라 베르나에서 세라핌 천사의 환시를 본 뒤 오상을 받았다.(1224)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갈라 2,20)"라고 말한 사도처럼, 이 거룩한 오상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그분과의 일치의 증거라고 시에나의 성 베르나르디노는 주장한다.

이후, 프란치스코는 새로운 눈으로 세상과 모든 피조물을 바라보았다. 「태양의 노래」에서 드러나듯이, 그의 신비체험은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 안에서 잘 표현된다. 프란치스코는, 실제로, 「태양의 노래」에서 창조된 세계를 ≪형

제≫, ≪자매≫ 그리고 ≪어머니≫라고 부르고 있다.

1226년 10월 3일 토요일 저녁, 프란치스코는 자매인 죽음을 맞아들였다: "나의 자매 죽음이여, 어서 오십시오." 그는 산 조르조 성당에 묻혔고 2년 뒤인 1228년, 아시시에서 그레고리오 9세에 의해 시성되었다. 1230년 5월 25일, 그의 유해는 산 조르조 성당에서 갓 지어진 성 프란치스코 대성당으로 옮겨졌다.

꼰벤뚜알 프란치스코 수도회 신부
관구비서

마리아의 모성적 중재

권정대 베드로

성령에 의지하고 유지되는 중재

마리아의 전 생애는 성령에 의해 인도되었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자신의 모든 것을 인류 구원의 신비에 바쳤다. 마리아는 성령의 힘으로 예수를 낳았고, 이로써 예수는 성령을 통해 우리 가운데 나셨다. 그러므로 마리아의 모성적 중재 또한 성령께 의지하고 유지된다.(39.41항) 마리아의 모성은 본디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에 의한 것이었다.(루카 1,35) 그러나 성령께 대한 마리아의 개방성은 주님 탄생 예고의 순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성령께서는 영원한 계약으로 마리아에게 주어지셨으며, 그리스도 육화의 각 단계에 함께 계신다. 마리아의 모성, 마리아의 마음을 가득 채웠던 믿음과 희망과 사랑, 하느님의 뜻을 수락한 순종의 힘, 그리고 십자가 아래에서 고통을 참아낸 용기는 모두 성령께로부터 비롯하였다.(13.14.39항)

성령은 주님 탄생 예고에서 마리아를 감쌌던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며, 엘리사벳을 방문할 때도 동반하신 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자들을

태어나게 하시는 삼위일체의 한 위격이시다. 마리아의 인격은 처음부터 성령의 특별한 영향권 안에 있었다. 주님 탄생 예고와 성령강림의 두 사건에서 마리아는 예수의 어머니, 교회의 어머니가 되시는데, 이 두 사건의 주인공은 곧 성령과 마리아이다.

성령의 사업에 참여하게 된 마리아의 모성은 '하늘의 올림을 받으신 후에도 뽑힌 이들의 수가 찰 때까지' 어머니로서의 중재를 계속하시어 당신의 자녀들을 어김없이 예수께로 인도한다. 이러한 마리아의 모성적 중재는 성령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유지되고 있다.(교회헌장 59항)

우리가 인성을 지니신 그리스도의 중개를 통해 성령 안에 은총을 받는다면, 의심 없이 그 은총은 마리아가 성령의 감도로 하느님께 드린 '순명(Fiat)' 속에 포함된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을 통해 신자들의 영혼 안에 그리스도를 탄생시킬 능력을 얻고자 동정녀께 전구를 구한다.(마리아 공경 27항)

구세사 안에서 특수하고 예외적인 중재

구세사 안에서 마리아의 특별하고도 예외적인 중재 역할의 근원은 마리아의 신적모성(神的母性)에서 비롯된다. 교회는 구세사 안에서 마리아의 특별하고도 예외적인 역

할의 근원이 마리아의 신적모성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신적모성에 대한 완전한 진리를 기초로 해야만 신앙생활 안에서 생활화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38항)

그리스도의 유일중개는 하느님 앞에 인간의 친교와 상호 책임을 해소하지 않는다. 그것은 그리스도와의 일치 안에서 하느님을 향해 다양한 모양으로 각기 다른 중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마리아의 중재 역할 또한 구원사업에 피조물적인 협력의 선상 위에 있다. 그러나 그것은 구세사 안에서 특수하고 예외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마리아의 중재는 성인들과의 친교 안에 있지만, 그녀만의 특수하고 유일한 방식 안에서 움직인다. 마리아 중재의 특수성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육화에 질서 지어진 하나의 모성적인 중재에 있다. 다른 인간적인 피조물을 존중한 마리아의 참여적 중재는 분명하게 그녀의 거룩한 모성으로부터 나온 특별하고 예외적인 것이다.

성부와 같은 본성인 성자의 어머니요, 구원사업에 너그러운 동반자로서 신적인 선택을 받은 마리아는 은총의 질서 안에 우리를 위한 어머니였다. 이 기능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구원적 신비 안에 그녀의 현존이 매우 중요한 몫으로 차지하고 있다.

마리아의 종속적, 참여적 중재

구세사의 정점이요, 핵심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화와 구원사업이다. 구세사의 모든 사건은 그리스도의 육화와 구원사업과 관련을 맺고 있으며, 이 사건에 의해서 그 수준과 가치가 측정된다. 마리아 중재성 역시 그리스도와 맺는 연관성에서 올바로 드러난다. 그러므로 마리아가 그리스도와 맺는 구세사적 역할과 의미 안에서 마리아의 '중재성'을 보아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 중개는 이차적인 중재를 제외하지 않는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학대전에서 '인류에게 하느님과 일치하도록 헌신함으로써' 완전히 이차적인 의미로서의 중재자라고 부르게 된다고 말한다. 곧 가톨릭교회가 마리아를 비롯하여 성인들도 하느님께 인류를 중재하는 데 있어 '중재자'라고 부르는 경우를 말한다.

개개인은 하느님의 은총과 협력함으로써 하느님과의 교류의 길이 열리게 된다. 구원된 모든 이는 구세주의 역사(役事)에 참여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형제자매들의 구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것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유일한 중개에 기인하는 것이다.

마리아의 모성적 중재와 성인들의 중재는 그리스도 안

에서 이루어지는 참여적 중재이다. 회칙 「구세주의 어머니」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교리 원칙에 따라 그리스도의 유일 중개와 마리아의 모성적, 참여적 중재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회칙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명에 마리아의 협력을 명백히 밝힘으로써 마리아의 중재를 그리스도의 중개에 '종속된 중재(從屬的 仲裁, Meditatio subordinata)'라 부른다. 마리아의 중재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중개직(Mediatorship)에서 그 어느 것 하나도 줄어들게 하지 않는다.(38항)

그래서 공의회는 구원 계획 안에서 마리아의 '순명(Fiat)'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한다. 이렇게 마리아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사실보다 하느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적 신앙 때문에 자신뿐만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도 지극히 복된 당신의 모성적 중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여기서 이루어지는 중재의 유일한 원천은 오직 그리스도의 유일 중개에서 나오는 것이고, 마리아는 하느님의 주도적 은총 안에서 이 엄청난 구세사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마리아는 하느님께서 이룩하시는 일이 무엇이든 자신에게서 이루어지도록 처신하는 순종적 신앙을 순수하게 구현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자세는 단순한 수동적 자세가 아니라 자유의지와 함께 하느님의 뜻이 자신에게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전인적인 처신으로서 하느님의 사업에 기꺼이 참여하는 것이다.

마리아의 참여적인 중재는 그리스도의 중개에 종속된다고 볼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마리아의 중재는 유일한 원천인 그리스도의 중개에 참여하며 그 임무는 종속적인 임무라고 헌장은 밝힌다.

따라서 교회가 가르치는 마리아의 중재는 종속적이며 참여적이다. 이러한 공의회의 가르침은 교회 일치적인 측면에서도 설명될 수 있다. 결코 교회는 마리아의 중재를 독립적이거나 절대적으로 이해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중개에 참여하는 점은 마리아의 중재가 갖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교회의 어머니로서의 중재

「교회 헌장」은 마리아를 '교회의 어머니'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아우구스티노의 인용문을 통해 'Mater Membrorum'(지체들의 어머니)라고 언급한다. 그리고 어머니이신 마리아와 교회의 연대성에 대해 언급하며 교회의 어머니로서의 중재에 대한 이해를 연결한다.

"마리아께서는 (…) '분명히 (그리스도의) 지체들의 어머니이시다. (…) 왜냐하면 머리의 지체인 신자들이 교회 안에서 태어나도록 사랑으로 협력하셨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마리아께서는 교회의 가장 뛰어나고 유일무이한 지체로서 또 믿음과 사랑 안에서 교회의 가장 훌륭한 전형과 모범으로서 존경을 받으시며, 가톨릭교회는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 자녀다운 효성으로 마리아를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로 받든다."(교회헌장 53항)

위와 같은 가르침에 이어 '그리스도의 어머니이시고 인류의 어머니이시며 특히 신자들의 어머니이신 천주의 성모님'(교회헌장 54항)이라고 고백함을 통해 앞선 가르침을 재확인한다.

교회의 어머니로서의 중재는 그리스도의 육신 안에서 머리와 지체들의 일치를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공동의 어머니를 통한 신앙인들의 심오한 결합을 나타낸다. 이는 개개인의 신앙인이 마리아를 어머니로 공경하는 것이 아님을 뜻한다. 이러한 해석은 「교회 헌장」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마리아에 대해 '은총의 질서 안에서의 어머니' 그리고 '어머니다운 사랑'에 대해서 말한다.

그러므로 이 칭호는 범우주적 차원이지, 개별적인 의미에서의 모성과 중재를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믿

는 이들 개개인과 관련되는 것도 아니요, 전체 인류와 관련된 것도 아니다. '모든 믿는 이들의 어머니'이며 '인류에 대한 마리아의 어머니로서의 임무'는 공동체로서의 교회와 관련된 것이며, 교회 구성원으로서의 개개인과 관련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회칙 「구세주의 어머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 당신의 새 모성으로 마리아께서는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 개개인과 모든 사람을 껴안으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의 어머니이신 마리아는 교회의 본보기이시기도 합니다."(47항)

공의회의 가르침을 통해 '교회의 어머니'로서 마리아의 중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다. 마리아는 교회의 어머니로서 그리스도의 지체인 교회의 모든 구성원과 긴밀히 결합한다. 그리고 이러한 결합은 마리아의 중재를 통해 탁월하게 드러나며, 결국 이러한 중재성은 교회 안에서 이해되어야 하는 것이다. 교회를 벗어난 개개인을 통한 중재는 교회의 어머니로서의 중재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마리아의 중재는 당신의 아들인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통해 탄생한 교회와 그 모든 구성원 사이의 일치에 걸림돌

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교회 안에서 드러나는 일치를 고무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마리아는 교회의 어머니이시며 교회의 원형이시고 또한 그 안에 있다. 공의회의 가르침은 마리아를 '교회의 어머니'라고 직접 언급하지는 않지만, 공의회 이후 교회의 문헌들을 통해 마리아를 '교회의 어머니'로 부르는 근거가 된다.

교황 바오로 6세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교부들이 반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를 '교회의 어머니'로 선포하였다.(마리아 공경 11항) 또 파티마의 성모 발현 50주년을 맞이하여 회칙 「큰 징표」(Signum Magnum)를 발표하면서 다시 한번 '교회의 어머니'로서의 마리아의 영적모성을 강조하고, 지금도 여전히 천상에서 성자 곁에 당신의 백성인 교회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여 준다고 강조하고 있다.

마리아의 모성적 중재의 특성

교회는 마리아 중재의 근원을 마리아의 모성(母性)에 두고 있다. 마리아의 중재는 그분의 모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마리아의 모성은 두 가지 모습으로 구체화된다. 우선 마리아의 신적모성(神的 母性, Theotokos)으로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신 예수가 성부와 동일한 신성을 지닌 천주의 제2위격이므로 마리아는 '하느님의 어머

니'(Theotokos)이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마리아의 영적모성(靈的母性)이다. 마리아는 십자가 밑에서 그리스도에 의해 전 인류의 어머니로 주어졌다. 마리아의 영적모성은 마리아가 그리스도의 구원사업에 협조하신 일을 교회와 세상 역사 안에서 계속하게 한다.(39-41항)

또한 마리아의 모성은 아들의 신비를 통해 분명히 드러난다. 마리아는 예수를 자신의 뱃속에 잉태하고 낳았으며, 젖을 먹이는 어머니로 나타난다.(루카 1,32 참조) 예수는 마리아의 살과 피에서 나오셨다. 이 모성 때문에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신 예수는 참된 사람이 되신 것이다.

성부와 같은 본성인 성자의 어머니요, 구원사업에 너그러운 동반자로서 신적인 선택을 받은 마리아는 은총의 질서 안에 우리를 위한 어머니가 된다. 영적모성은 교회와 그리스도 구원신비 안에서 그녀의 현존에 있어 매우 중요한 몫이 되게 한다. 마리아의 모성은 구세주이신 당신 아드님의 일에 협조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실 모든 인간에게 정을 쏟는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마리아의 모성은 그리스도 사명의 대상이 되는 모든 이에 대한 더욱더 '불타는 사랑'으로

가득하게 되었다.(38항) 십자가 밑에서 그리스도에 의해 마리아는 전 인류의 어머니로 주어졌다. 믿음에 의해 태어난 마리아의 새로운 모성은 당신 아들의 구원하시는 사랑에 참여함으로써 십자가 밑에서 결정적으로 완성된 '새로운 사랑의 열매'다. 마리아의 영적모성은 예수의 구원사업과 관련하여 지상에서 시작하였던 그 일을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일치와 결합 속에서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 전구하는 중재를 통해 드러내고 교회와 세상 역사 안에서 계속된다.

모성적 중재의 보편성

마리아의 모성적 중재는 '보편적인 차원'을 지닌다. 구세사에는 연대성을 지닌 '대표'의 법칙이 작용하고 있다. 이 법칙은 각 개인의 행위가 집합적 혹은 집단적 의미를 지님을 뜻한다. 마리아는 당신의 모든 자녀를 위한 항구한 전구 속에서 언제나 아들 구세주의 구원 작용에 협력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구원사업은 전 인류를 포함하기 때문에 마리아의 모성적 전구는 보편적, 연대적 의미를 지닌다. 마리아의 모성은 온 인류에 퍼져 작용하기 위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구원사업은 전 인류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마리아의 협력은 종속된 신분(subordinated character)으로서 유일한 중개자인 구세주 중개의 보편성

에 참여한다.

마리아는 당신의 모성적 사명을 통해 그리스도와 교회와 일치하고 있다. 곧 마리아의 신비는 그리스도론적이면서 교회론적인 관점을 하나로 연결해주고 있다. 마리아와 교회의 일치는 바로 마리아의 모성과 동정성에서 나온다. 마리아의 모성은 육체적인 관계에서가 아닌 영적인 관계에서의 모성이며, 이 탁월한 모성은 사랑으로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신비체를 구성하는 신자들이 태어나도록 협력하고 그들을 위해 전구해 주는 보편적 모성이다.

그러므로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육체적 어머니인 마리아가 영적으로도 그리스도 지체들의 어머니가 된다. 마리아의 협조는 종속적인 상태로 유일한 중개자이신 구세주의 중개가 지니는 보편성에 참여하는 것이다.

모성적 중재의 지속성

마리아의 중재는 그리스도의 생애와 교회 시작의 순간에 표명되었는데 그 역할은 하늘에서도 영광을 받으시는 주님과 일치하여 역사가 완성될 때까지 확장된다.(40-41항)

마리아는 모든 자녀를 위해 전구하면서 구세주 성자의 구원사업에 협력한다. 실제로 공의회는 은총의 섭리 안에

마리아의 모성이 선택받은 모든 이의 영원한 완성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지속된다고 가르친다. 마리아는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늘 그리스도인들의 길에 실재하고 현존한다.

마리아는 주님의 여종으로서 섬김을 그치지 않고 다양하고 특별하게 성령강림 때부터 전 인류의 영원한 승리의 날까지 자신의 모성적 중재를 완성하고 있으며 구원에 유익한 마리아의 영향은 성령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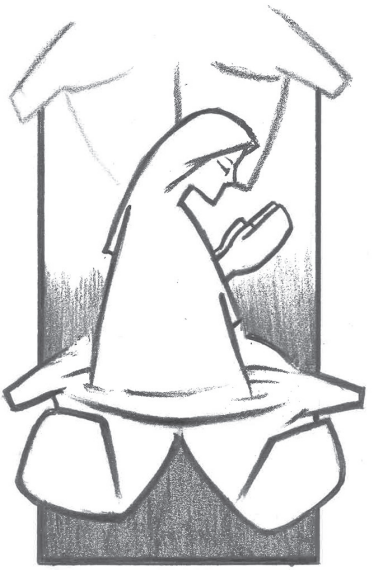
꼰벤뚜알 프란치스코 수도회 신부
로마유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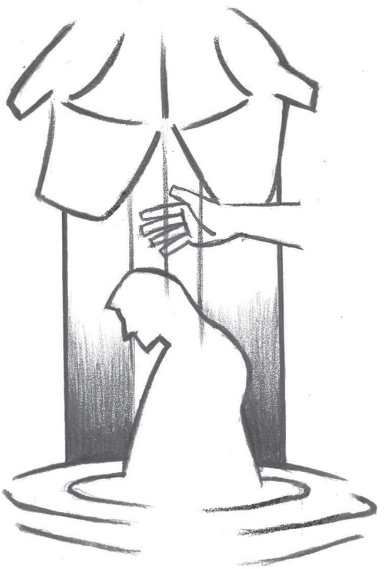
말씀묵상

최창원 니콜라오

"하느님,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출산을 통하여, 인류에게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으니, 언제나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시는 성모 마리아의 전구로, 저희가 생명의 근원이신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게 하소서."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본기도)





"주님이 세례를 받으시자 하늘이 열렸네. 성령이 비둘기
처럼 그분 위에 머무르시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주님 세례 축일 입당송)

간장종지 화가

님

박영철 요셉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듯
고요와 적막 속에
홀홀 단신 서 있는 님,
어느 순결한 분일까요.

사랑의 빛을 끝없이 바라시며
보는 이로 하여금
마음의 평온을 찾게 하는 님,
어느 고결한 분일까요.

그분은 바로 나의 님.
작디작지만 결코 작지 않은 님.
깊고 깊지만 결코 깊지 않은 님.
님은 만물 위에 존재하시며
내 가까이 항상 계시는 분입니다.
당신은 나의 빛,
나의 희망입니다.

꼰벤뚜알 프란치스코 수도회 수사

어머니, 잘 다녀오겠습니다!

신재희 베드로

평화를 빕니다. '성모기사'를 읽는 모든 분께 인사드립니다. 저는 꼰벤뚜알 프란치스코 수도회 신재희 베드로 수사입니다. 이렇게 기사지로나마 여러분과 인사할 수 있어 기쁩니다. 부족한 글쓰기 실력으로 제 1년 동안의 선교 체험에 관한 글을 연재하게 되었습니다. 제 글을 누군가가 읽는다는 것이 조금은 창피하고 부끄럽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서툴고 부족하더라고 열린 마음으로 읽어주시고 기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6년 겨울, 해외선교체험을 떠나보겠다고 원장님께 요청을 드렸다. 무엇이 그렇게 절실하였는지 이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 허락해주셨다. 당시에는 어디로 떠나게 될지 알지는 못하였지만, 여러 가지 걱정거리가 많았다. 우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해외 체험이 그중 하나였고, 의사소통을 하는데 문제는 없을까라는 걱정도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걱정 중에서도 무엇이 그토록 나로 하여금 선교체험을 갈망하게 하였는가하면 내가 얼마나 낮은 곳에서 살아갈 수 있을지에 관한 시험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아직은 어린 수사에게 1년이라

는 시간을 외국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수도회에 감사함을 느낀다.

선교체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나를 신앙으로 이끌어 주셨고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워주신 나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할지에 대한 용기를 주신 분이다.

여름방학을 앞두고 집에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 저 곧 있으면 휴가 가요." 학기를 마치고 떠나는 휴가에 들뜬 마음으로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는데, 어머니의 목소리에 반가움보다는 불안과 함께 안도가 깃들어 있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어머니께서는 별일 아니라고 말씀하시며 아들이 휴가 오는 날이 때마침 수술 날짜를 잡아놓은 날이라며 아무것도 아닌 일인 듯이 털어놓으셨다.

몇 년 전부터 한쪽 눈이 점점 흐려지고 안 보이기 시작하셨는데 안과만 다니다가 다른 병원으로 옮긴 후 검사해 보니 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었다. 뇌에 있는 혹이 커지면서 눈의 시신경을 눌러 눈이 보이지 않게 된 것이다. 처음에는 안경을 여러 차례 바꾸다가 그 다음에는 노안이려니 하고 지내시다가 이제 눈이 안 보이기까지 하니 다른 병원에 가신 것이다.

오랜 기간 동안 혹을 키워왔는데 그걸 알아차리지 못한 게 아들로서 죄송스러웠다. 한편으로는 혼자이신 어머니께서 퇴임하신 신부님을 십수 년째 모시고 있는데, 본인 몸 관리할 생각은 안 하셨는지 답답한 심정이었다. 병을 더 빨리 알아차렸으면, 이렇게 병을 키우기 전에 알았으면….

"휴가 가면 병간호 제가 다 해드릴게요"라고 말씀드렸더니 그제야 "그래도 아들 수사님이 휴가 때 엄마가 수술하게 돼서 다행이야"라며 안심하셨다. '왜 말씀 안 하셨어요?'라고 따져 묻고 싶었지만 수도원에 있으면서 혹시나 피해를 주지 않을까, 걱정 끼치진 않을까 고민 고민 하다가 끝내 말 안 하신 거란 생각이 들었다.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 입원 절차를 밟고 보호자 동의서에 사인했다. 수술 전날 저녁 담당 의사가 부르더니 수술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해주고 꽤 큰 수술이 될 거라는 말과 함께 어머니의 머리카락을 밀었다. 어머니는 그 모습이 마빡이 같다며 마빡이 흉내를 냈고, 나도 웃고 어머니도 웃었다.

온전히 어머니와 나 둘만의 시간이 어렸을 때 말고는 없었는데, 병간호 해드린다고 그런 시간이 주어졌다. 어머

니는 그 당시에도 수녀원에 있었던 누나에게도 수술 얘기는 꺼내지 말라며 나에게 당부하셨다. 다음 날 오전 9시로 수술 시간이 잡혔다. 그 날 저녁은 잠이 오질 않았다. 그 병실에 있었던 환자들을 포함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병에 걸리고 또 그것을 이겨내려 노력할까…. 묵주기도를 계속 바쳤다.

날이 밝고 수술실로 가기 전 어머니도 긴장한 기색이 역력하였다. 어머니 친구 몇 사람이 용기를 북돋아 주기 위해 왔는데, 함께 수술실로 가면서 왜 그렇게 눈물이 나던지…. "뇌수술은 잘못될 확률도 있어요"라고 말을 뱉었던 의사의 설명에 혹시나 하는 감정이 싹텄기 때문일까?

수술실로 가기 전에 힘이 못 될망정 그런 내 모습에 어머니도 우셔서 죄송한 마음이 들었다. 그런데 병원 침상을 끌고 가면서 옆에 계신 수간호사께서 어떻게 아셨는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걱정 마세요. 저도 천주교 신자예요. 기도할게요." 그 말에 나도 어머니도 안심이 되면서 그 분이 하느님께서 보내주신 천사처럼 보였다. 왠지 나약하게 눈물을 보인 내가 민망하였다.

전광판에 어머니 이름과 함께 '수술중'이라는 불이 들어왔다. 7시간 정도로 예상했었지만, 오전 9시에 수술실에 들어갔던 어머니를 저녁 10시가 되어서야 중환자실에서

볼 수 있었다. 그 13시간이라는 시간은 시간이 아니라 세월로 느껴질 정도로 길었다. 평소에도 몸이 허약했던 어머니는 걱정과는 달리 긴 시간을 수술대 위에서 잘 견뎌내셨고, 중환자실에서 하루 만에 일반 병실로 옮길 정도로 빨리 회복하고 계셨다.

그러다 갑자기 어머니 의식이 점점 흐려지기 시작했다. 병문안 온 신부님과 어머니 친구들도 당황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의사에게 물어봐도 명확한 답을 주지 않았고,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옆 침상에 뇌종양 수술을 한 아내를 간호하는 아저씨에게 여러 차례 물어보았다. 뇌수술이 이런 것인가…. 그때부터였을 것이다. 엄청난 불안감이 몰려오고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다. 설상가상으로 어머니는 수술 받은 지 이틀만에 약에 취한 사람처럼 의식을 차리지 못하였다. 말 그대로였다. 의사들이 와서 수술 후 후유증과 통증을 조절하기 위하여 썼던 약들이 과하여 의식을 차리지 못하는 것이니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말했지만, 어머니께서 의식을 차리지 못했던 일주일은 모든 것이 바뀐 세상과도 같았다.

결국 수도회에 이 사실을 알리고 어머니 간호를 계속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였다. '어머니께

서 깨어나지 못하시면 어떡하지?' 그것에 대한 답은 나왔다. '내가 평생을 모시며 간호할 거야!' '그럼 병원비와 생활비는?' 그 길로 병원 부속 사회복지부와 어머니 보험을 확인하였다.

심지어 '의료과실로 병원과 싸워야 되나?'라는 생각도 들면서, 혹시나 모르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집 근처에 있는 공장에 다음 달부터 시간제로 일하게 해달라고 이력서까지 냈었다. 그만큼 혼란스럽고 정신이 없었다. 하루에 여러 차례 대 소변을 받고 깨끗한 환자복으로 갈아입히면서 몇 번이고 하느님과 힘겨루기를 하였다. 처음 해보는 병간호가 서툴러 주위 사람들의 도움도 받아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해나갔다. 그렇게 어머니의 몸을 닦아드리고 있을 때, 대부님이 찾아왔다.

학생 수사의 어머니가 병원에 있고, 수도회 밖에서 생활하고 있으니, 어떻게 지내는지 그리고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오신 것이다. 나의 어릴 적 대부님이자 수도회 선배인 베네딕토 수사님이 오셨지만 어머니는 전혀 알아보지 못하셨다. 평상시 같았으면 아주 반갑게 맞이하셨을 텐데…. 자신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어머니의 모습에 대부님은 말씀이 없으셨다. 그리고 조용히 어머니의 머리에 손을 얹어 기도를 하시고, 나를 식당으로 데리고 가서 밥을 사주셨다. 어머니가 아프고 나서 처음으

로 맛있게 밥을 먹을 수 있었다.

어머니께서 완전히 의식이 없으셨던 3일은 참으로 혼란스러운 시간이었다. 의사들이 회진을 돌고 병실을 나가면 오히려 더 눈물이 났다. 시간이 지나고 점차 어머니 의식이 뚜렷해지기 시작할 때가 되어서야 병원에서의 시간이 겨우 한 달 지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대학 병원에서 입원할 수 있는 기간을 다 채우고서 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모시게 되었다. 얼마 전 내 판단과 행동이 우스울 정도로 어머니 상태는 빠르게 호전되었다.

그리고 나에게 "아들 수사님 이제 수도원 가셔야죠. 엄마는 괜찮아"하셨다. 그 말에 40일, 어머니와 함께한 시간을 마치고 수도회로 돌아왔다. 어머니의 그 한마디와 다시 괜찮아지는 모습을 지켜보았기에 돌아올 수 있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으니, 어머니 의식이 없을 때 병간호하면서 보았던 가슴에서부터 명치까지 일자로 깊게 나 있는 상처 때문이었다.

나에게 말도 하지 않고 하셨던 큰 수술로 얻으신 상처였다. 그 전에도 한 번 겪어보았던 어머니는 그만큼 단호하셨다. 그리고 내가 걷는 이 길에 행여나 가시가 될까봐 그 가시를 가슴에 파묻는 분이셨다. 그렇게 어머니 병간호를 마치고 돌아온 후 다시금 내 수도 생활 여정을 살펴

볼 수 있었다.

또한 이리 찔리고 저리 찔려야 될 가시밭길에 맨 몸으로 맞서서 평탄한 길로 만들어 주시는 어머니를 통해 나를 보살피시는 성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다.

그렇게 수도원에 돌아와서 한 학기를 보내고 그해 겨울에 선교체험을 청하였다. "가장 가난한 나라로 그리고 가장 열악한 곳으로 저를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자식의 수도생활에 방해는 되지 않을까봐 혼자서 그 큰 상처들을 껴안고 있는 어머니를 생각해서라도 더 잘 살아 보겠다고 다짐했다. 그것이 나에게는 의지로 다가왔고 예전부터 꿈꾸어왔던 소명으로 나를 부르는 것만 같았다. 웃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과 보이지 않는 가슴의 상처가 그렇게 나를 더 나은 내가 되어가게 만든다.

지금 어머니는 건강을 회복하셔서 다시 일을 하시며 기쁜 마음으로 신부님을 모시고 있다. 휴가 때 나가서 그 모습을 보자면 마치도 한 쌍의 개그 콤비를 보는 것 같다. 어머니의 그 웃음 속에서 혼자서 꿋꿋이 감당하려는 강한 의지들이 이제는 내 눈에도 보이기 시작한다.

인도라는 나라로 선교체험을 떠날 수 있다는 것이 결

정되었을 때,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다. "어머니, 저 인도로 1년 동안 선교체험 다녀올 것 같아요. 건강은 괜찮으시죠?" 어머니께서는 별말씀 없으셨다. 그냥 한 마디, "그래, 아들 수사님 잘 다녀오세요"라 하셨다. 내가 아무리 어려운 길을 간다고 하더라도 어머니의 대답은 하나일 것이다. '그래 잘 다녀와라.' 그것은 이 길이 하느님을 향하는 여정 안에 있기 때문이며,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어머니라는 존재가 나를 위해 희생하며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머니, 잘 다녀오겠습니다!'

곤벤뚜알 프란치스코 수도회 수사

하느님의 은총으로 지금의 내가 되었습니다.

김병훈 세례자요한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먼저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저를 이 자리에 서게 해 주신 하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사실 첫 미사 강론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보통 첫 미사 강론은 자기 성소에 대해 이야기 한다고 해서 저도 제 성소(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마태오 복음서 20장 1-16절은 "선한 포도밭 주인의 비유"입니다. 복음의 내용은 포도밭 주인이 자기 포도밭에서 일할 일꾼들을 포도밭으로 보내는데 어떤 사람은 오전 아홉 시에 어떤 사람은 오후 열두 시에 또 어떤 사람은 오후 세 시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후 다섯 시에 보낸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복음을 읽을 때마다 오후 다섯 시에 뽑힌 사람이 꼭 저를 두고 하시는 말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남들보다 아주 늦게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부산에서 사회생활을 하던 시절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적성에 맞지 않아 제가 좋아하고 잘 할 수 있는 일을 찾게 해

달라고 성모님께 9일기도를 바쳤습니다. 일을 하면서 54일 동안 묵주기도를 바친다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성모님의 도우심으로 9일기도를 무사히 마치고 난 뒤 며칠 지나지 않아 사제가 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참으로 이상하게도 저는 사회에서 일을 찾게 해 달라고 성모님께 전구를 청했는데, 기도의 응답은 정반대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사실 제 마음 안에는 하느님보다 돈이 윗자리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돈 많이 벌면 제가 하고 싶은 것 다 하며 세상이 주는 기쁨들을 맛보며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9일기도 이후 제 마음 안에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저에게는 그것이 참된 기쁨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더욱더 주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나가지 않던 평일미사를 참례하고 기도생활과 젊은이 성령기도회 모임을 참석하면서 깨닫게 되었던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신학교에 가고 싶은 마음에 하고 있던 일을 그만두고 열심히 시험 준비를 했지만 신학교 시험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저는 나 같은 사람은 사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사제가 되고 싶은 마음을 주님께 봉헌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부산에서의 모든 생활을 정리하고 본가로 올라오려고 하던 중에 지인 수녀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수녀님께서 저에게 대연 성당에 가면 수도원이 있는데 거기 계시는 외국인 신부님을 한번 만나보고 올라가라고 했습니다.

수녀님의 간곡한 부탁이라 어쩔 수 없이 신부님을 만나게 되었고 제가 간 그곳이 바로 꼰벤뚜알 프란치스코 수도회였습니다. 저는 그 당시 수도원에 대해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신부님은 혹시 수도 성소가 있냐고 물어보셨고 저는 딱 잘라 전혀 그런 마음이 없다고 말씀드렸더니 신부님께서는 웃으시면서 우리가 언제 다시 만나게 될지 모르지만 행복하게 잘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부산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본가로 올라와 좀 쉬면서 직장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방에는 "봉헌을 위한 33일 기도"라는 책이 있었는데 왠지 그 책을 읽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책을 읽으며 제 자신을 성모님께 봉헌해야 하겠다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고 그렇게 33일간의 기도가 시작 되었습니다.

33일간의 기도가 끝나고 난후 대구 월배에서 직장 생

활을 하게 되어 월배 성당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집과 성당 그리고 직장이 같은 동네에 있었기에 출퇴근할 때 항상 성당에 들려서 예수님과 성모님께 인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참 이상한 것은 이곳 월배 성당도 꼰벤뚜알 프란치스코 수도회가 있는 성당이었다는 것입니다. 아침 출근 시간에 성모상 앞에서 인사를 드릴 때면 수도원에서 나는 기도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성모님, 기도소리가 참 좋아요'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나자 성소에 대한 마음이 다시 들기 시작했습니다. 성소를 포기하고 사회생활을 다시 시작하는 저에게는 큰 고민거리였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출근 전 성당에 들려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답을 달라고 주님께 청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어떤 자매님 한 분이 성당 문 앞에서 절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님은 하느님께 봉헌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분도 처음 보는 사람에게 왜 이런 말을 하고 싶은지 모르겠지만 이 말을 꼭 해주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겠다고 하면서 가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성모상 앞으로 가서 말씀드렸습니다. '성모님, 어떤 자매님이 저를 보고 하느님께 봉헌된 사람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이 순간 저도 모르게 두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는 그날 일어난 일이 너무나 이상해서 제 머리에서 지우려고 했습니다.

며칠 후 쉬는 날 성당에서 묵주기도를 드리고 나오는데 성모상 앞에서 수녀님 한 분이 절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제 이름과 세례명 그리고 나이를 묻고는 수도원에 들어갈 마음이 없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하느님을 따를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더니 수녀님은 사람에 대한 판단은 오직 하느님만 하시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와 며칠 전에 있었던 일과 또 오늘 있었던 일을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달 동안 예수님께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기도의 응답을 달라고 청했는데 그 답을 다른 이를 통해 알려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얻은 저는 수도회에 문을 두드렸고 입회 과정을 거쳐 2010년 꼰벤뚜알 프란치스코 수도회에 입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34살이었습니

다. 하느님의 섭리는 참 오묘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남들보다 늦은 나이에 돌고 돌아서 교구가 아닌 수도회로 불러주신 것에는 다 이유가 있었음을 수도회에 입회하고 나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하느님께 드릴 것이라고는 죄와 부끄러움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저에게 주님께서는 사제직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제가 있기까지 하느님의 도우심과 은총이 없었다면 저는 결코 이 자리에 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인공은 제가 아니라 제 뒤에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많은 신자로부터 박수와 갈채를 받아도 제가 아닌 주님께서 받으셔야 합니다.

사제서품을 앞두고 가장 큰 두려움은 '제 부족함으로 인해 혹시나 하느님의 이름에 누가 되지는 않을까?'하는 걱정이었습니다. 부족한 점이 참 많은 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본받아 교회와 이웃을 위해 충실히 봉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꼰벤뚜알 프란치스코 수도회 신부

떠났는데도…변했는데도…
남아 있는 건 ???!!!

이연희 플로렌스

고국 방문은 참으로 새롭다. 2014년 한국 방문 때도 이런 말을 썼던 기억이 난다. 모든 것은 변하고, 매 순간이 새롭다. 아무리 나를 만난 사람들이 내게 "하나도 안 변했네! 그대로네!" 말한다 하더라도 말이다.

2014년 방문은 그랬다: 페로제도 한국입양인 디아나와 2주간 동행했는데, 세월호 참사와 부모님의 불화가 빚어낸 참사를 직접 내 눈으로 보아야 했다.

2017년 방문은 이랬다: 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신 아버지의 빈자리를 보아야 했고, 새 대통령을 탄생시킨 새나라, 엄마가 생애 처음 살기 좋은 곳으로 이사한 새집 그리고 새 관구집을 보았다. 이 모든 것이 내 마음을 사로잡았다.

새롭게 지어진 관구집에서 두 밤을 지내며 만난 아픈 자매들과 상황들이 조금은 충격을 주었고, 새로운 결정이 이루어지는 새 정부의 강인함, 어려움과 걱정을 보고 들었다.

광주로 와서는 어머니와 함께 해남 마산면 고향으로 갔다. 제일 먼저 89세 되시는 5촌 당숙을 뵙고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 일어 나 자신도 조금 놀랐다. 그분의 말투, 목소리, 모습이 울 아버지와 어쩜 이리 같은지…. 이렇게라도 아버지를 다시 보고 싶어서였을까. 정작 아버지의 이름이 적힌 납골묘 앞에 앉아 있을 땐 아무런 목소리도, 그 어떤 모습도 보이질 않는데….

어머니와 여러 날을 함께 지내는 동안, 특히 밥을 함께 먹으며 어머니는 (물론 내가 물어보기도 했지만)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고 되풀이하신 통에 아버지를 다시 만나게 되는 셈이었다. 엄마의 결론은 "살 때는 징하게 나를 고생 시키더니 가실 때는 이쁘게 가셔서 젤 고맙다야!!!"였다.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 아버지는 우연히 방문하신 어머니의 레지오 단원에게 대세를 받으셨고, 며칠 전에는 마지막 남은 통장 명의를 변경하자고 일 끝나고 오시는 엄마를 기다리고 있으셨단다. 당신의 큰 통장 2개는 어머니의 이름으로 오래 전에 바꾸어 놓으시고는 말이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부터 거동을 거의 못 하시더니 자리에 누우셨다. 자리에 눕고 나서는 새로운 모습을 많이 보이셨다고 한다. 평소에 구박하셨던 묵주기도를 조용히 손

모아 앉아 들으시고, 식사 전 엄마가 기도를 깜빡했을 땐 '기도 안 한가?' 물으셨다고 한다.

게다가 3년 넘게 따로 사시다가 아버지 병 수발하러 들어와 아버지께서 사용하시던 밥솥으로 처음으로 한 밥이 질게 되었는데도 '맛있다!' 하시고, 다른 날에 고실하게 밥이 잘 됐을 때도 '맛있다!' 하셨단다. 그리도 밥상에 까탈스러우셨던 아버지에게서 어머니는 처음으로 '맛있다!'는 소리를 들어보신 거다.

편찮으시긴 했지만 아버지께서 이리 금방 가실 줄은 누구도 몰랐는데…. 아버지는 그렇게 온 곳으로 돌아가셨다. 예상외로 문상객이 많아 다행이었다. 특히 어머니께서는 전국에서 모여 온 엄청난 수녀님들 덕분에 너무나 놀라셨고, (어머니의 표현을 빌리자면) 본당에서 당신의 격이 높아지셨다고 했다.

이 자리를 빌어 이 세상을 떠나가신 아버지의 마지막 길에 온 마음과 온몸을 다해 함께해 주신 관구의 모든 자매께 나의 온 마음을 다해 감사드리고 싶다.

짧게는 2~3년 만에, 길게는 16~30년 만에 만난 사람들, 고향, 주위 환경들…. 뭔가는 변해있지만 마치 어제 만났던 것처럼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반가운 건 너무 이

상할 정도다. 그래서 생각해 본다. 떠나야 하고 변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 무언가가 남아 있는 게 있다는 거다.

호랑인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는데…. 이름을 남긴다는 건 아마도 그 이름에 얽혀 있는 삶과 기억, 추억이 살아 있다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내가 받은 이름에 걸맞은 소명과 사명을 살아야 하는가 보다.

이번 방문에서 연이 닿아 만날 수 있었던 자매들과 그렇지 못했던 자매들 모두 고맙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다시 만나 연을 맺고 사랑의 생명을 낳으라 보내시는 곳으로 떠납니다.

마리아의 전교자 프란치스코회 수녀

겨울 바닷가

김종국 요셉

씻기지 않을 고통이 응어리진 채
하늘과 바다에 메워져 있는 새벽 바닷가
채워도 채워도 만족을 못 하는 인간의 욕심은
살육 전쟁의 포화되어 대륙 끝 여기까지 내몰았다

굶주림을 피해 나온 피난민 엄마의 등 뒤에서
겨우 내뱉는 아이 숨소리
이름 모를 바닷새가 하늘로 물고 날아간다
숨이 끊어지는 아이를 부둥켜안은 어미의 분노의 외침은
새벽을 가른다

"어디에 살 곳이 있고
누구에게 기댈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 살아 보려 이 땅끝까지 왔지만
더 잃어버릴 것 없어요.
잘못으로 더 겪어야 속이 풀리신다면
끌고 갈 힘이라도 제게 주세요.

행실대로 갚아 주신다는 당신의 말씀은
제 죽음을 필요로 하십니까?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당신의 결정이라면
저부터 걷어 가 주세요.
저 추운 바닷바람
내 몸을 굳게 하여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어요.
이제 마지막 한마디 당신께 드릴게요.
해와 바람, 비를 주시는 당신은
제발 제게서 얼굴만은 돌리지 마세요."

성모기사회원

신앙을 위협하는 여러 위험

구원모 막시밀리아노 마리아 콜베

† 찬미예수님,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그분의 선하심이 꼰벤뚜알 프란치스코 수도회 한국 성 막시밀리아노 콜베 관구의 동반자이신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시기를 빕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인간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수난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잃어버린 영원한 생명을 다시 찾아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 뜻대로 영원히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험난하고 악의 세력은 강합니다. 참된 신앙을 위협하고, 세례성사를 통해 이미 얻은 영원한 생명을 앗아가려는 여러 위험이 있습니다.

신영성 운동

신영성 운동은 뉴에이지라고도 불립니다. 주변에서 흔

히 볼 수 있는 형태로는 기공(氣功), 단전(丹田)호흡, 초월명상, 선(禪)과 같은 수련 방법을 가르치는 도장들입니다. 이러한 도장들은 특정의 수련 방법이나 비법들을 통해 정신적인 안정과 평화를 얻을 수 있으며 건강을 증진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문제는 이들 가운데 심신 수련을 앞세운 종교 집단들이 꽤 있다는 사실입니다. 수련의 단계가 깊어질수록 종교집단의 본색을 드러냅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특히 기(氣) 수련 단체들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정신적 · 육체적 건강 효과를 체험한 이들에게 잘못된 사상을 주입합니다.

예를 들어 만물의 근원인 기에 의탁하여 이런 효과를 봤다느니, 내 안에 영생을 누릴 힘이 있으니 굳이 신에게 의지할 필요 없다느니 등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교의 본질과 정체성에 심각한 손상을 끼침으로써 신자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을 잃어가게 됩니다.

무속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점을 보고,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부적을 쓰고…. 물론 호기심으로 또는 별 생각 없이 하는 경우가 많겠지요. 하지만 교회에서 무속을 금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속은 보통 세 부류로 나뉩니

다. 텔레비전에 많이 나오는 사기꾼, 주역이라는 책을 바탕으로 한 연구, 마지막으로 귀신들린 이들 즉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악령입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세 번째 경우입니다.

전염병이 만연한 지역에 있으면 나 역시 병 걸리기 쉽습니다. 더러운 곳에 가면 나 역시 더러워지기 쉽습니다. 마찬가지로 악령의 영향에 접하게 되면, 그것도 점에 마음을 열고 있는 상태라면 쉽게 그 세력에게 자리를 내주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지난 일을 맞추는 등 신통하게 점괘가 맞기도 합니다. 그다지 신기한 일은 아닙니다. 그들 역시 이전에는 천사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유괴범이 아이들에게 이것저것 사주고 잘 해주는 것은 그 아이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돈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악령들은 그 대가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영혼을 노립니다.

사이비적 성향을 가진 개신교 일파

이들은 많은 천주교 신자가 성경을 잘 읽지 않음을 간파하여 천주교 신자들을 만나 성경에 관해 이야기하자고 접근해옵니다. 일단 접점을 잡으면 성경의 여러 구절을 늘어놓으면서 교묘하게 끌어들입니다. 그들의 모임에 한 번

가게 되면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신천지입니다.

공식 명칭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성전"은 교주 이만희가 창설한 신흥종교 단체로서 재림 예수의 영이 이만희에게 내렸고 천국의 비밀이 계시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왜곡된 성경해석에서 비롯된 교리 주장으로 청소년들의 학업 중단, 사직, 가출, 이혼, 가정 파괴 등의 심각한 종교사회적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신천지는 자신의 신분을 철저히 감추고 개인적인 친분을 맺은 후, 성경공부를 하자고 권유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성경공부는 교주를 신격화하기 위해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짜맞추는 것에 불과하므로 성당이나 교회기관 밖에서 이루어지는 성경공부는 반드시 본당의 성직자나 수도자에게 문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공공장소에서 설문 조사를 통해 개인 정보를 입수해서 끊임없이 가입 권유를 합니다. 따라서 설문 조사 때 개인 정보를 기입하는 난이 있다면 쓰지 마셔야 합니다.

반교회 집단

소설, 영화 등 주로 대중매체를 이용해 그리스도교의 진

리를 훼손시키면서 사람들의 주의를 끕니다. 그 예로 영화 '바이블 코드(The Bible Code)'를 들 수 있습니다. 주 내용으로는 '예수는 결혼했다, 성모님은 동정녀로 예수를 잉태한 게 아니었다, 예수 탄생 이야기는 날조이다, 예수는 부활하지 않았다' 등이 있습니다.

거짓 성모발현

탈혼 상태에서 여러 가지 신기한 경험을 했다든지, 성모상에서 피눈물이 흘렀다든지, 성체의 이적이 일어났다든지, 하늘에서 성체가 떨어졌다든지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유명한 성모님 발현 중에서 프랑스 루르드 발현과 포르투갈 파티마 발현이 있습니다. 그러나 발현과 메시지는 신앙의 의무가 아닙니다. 즉 '믿어도 된다'이지 '믿어야 한다'가 아닙니다. 따라서 사도의 후계자인 교구장의 인정을 받지 않은 현상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사적계시는 공적계시를 도와주는 역할을 할 뿐이지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기적현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의 기적도 그분의 말씀을 뒷받침해주는 증거였을 뿐입니다.

가계치유

가계치유를 위한 미사 봉헌을 종용하면서, 조상을 미사 제대 앞에 모이게 해 달라고 기도하거나, 미사 중에 조상들의 죄까지 고백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효과가 미사 봉헌 후 수개월 뒤에 나타날 수 있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피해 사례 조사에 따르면, 치유를 빙자한 헌금 강요는 물론, 건전한 신앙과 영성 생활에 많은 피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잘못된 성령쇄신운동

성령운동은 개신교에서 시작되어 가톨릭에 도입되었습니다. 성령 세미나는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강사와 은사자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그 중에는 성체성사의 중요성이라든지 교계제도의 기능, 성인들의 통공과 성모님께서 하느님의 구원계획에서 하는 역할 등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거나 제쳐놓게 되는 경우라든지, 비성경적이거나 전통과 반대되는 요소들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거짓 성모발현과 가계치유가 연결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성령 세미나는 강사가 누군지 잘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구마다 성령쇄신 봉사회 지도를 전담하시는 신부님이 계십니다. 이렇게 교구에서 승인하고 인정하는 강사가 지도하는 성령 세미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건전한 신앙생활을 해치는 위험들에 대해 몇 가지 살펴봤습니다. 사실 세상은 험난하고 악의 세력은 강하고 우리 인간은 나약한 존재입니다. 어찌 혼자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주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깁시다. 성삼위와 가장 가까이 계신 우리 참 어머니, 원죄 없으신 마리아님과 함께 삼위일체 하느님께 나아갑시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나, 할 수만 있으면 선택된 이들까지 속이려고 큰 표징과 이적들을 일으킬 것이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해 둔다." (마태 24,24-25)

꼰벤뚜알 프란치스코 수도회 신부

성 막시밀리아노 콜베 관구 쇄신 교육

11월 13일부터 17일까지 제주 면형의 집에서 수도회 쇄신 교육을 가졌습니다. 한국 관구 수사들이 모두 모여 기도와 쇄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주의 어제와 오늘, 특히 제주 천주교회사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였고, 제주 글라라 수녀회를 방문하는 기회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한국순교복자수도회 이동철 베드로 수사님의 안내 아래 제주의 아름다운 순례길을 걸으면서 많은 것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소중한 쇄신의 시간을 가지고 온 수사들이 다시 각자의 사도직 속에서 변화되고 기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전주지구 소식

11월 12일, 전주지구 기사회원들과 최우식 프란치스코 수사는 재속프란치스코회 중앙형제회 월례회에 초청되어 성모기사회를 알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최우식 수사는 강의를 통해 성모기사회 창설 경위 및 기사회의 특전인 12월 8일 전대사에 대해 설명하면서, 성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한 프란치스코 성인의 제자들인 재속프란치스코 회원들이 성모기사회에 가입해서 원죄 없으신 성모님을 통한 주님 은총 가득하기를 권했습니다.

알림

기사지 활자체가 커졌습니다

많은 회원께서 건의해주셔서 다음 비교문처럼 활자체를 크게 했습니다.

2017년 12월호 2쪽 활자크기

아기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그분의 선하심이 꼰벤뚜알 프란치스코 수도회 한국 성 막시밀리아노 콜베 관구의 동반자이신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시기를 빕니다.

2018년 1월호 2쪽 활자크기

'성모기사'를 읽는 모든 분께 새해 인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성모님을 닮은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 해가 되십시오."

새 사제 1월 첫 미사 일정입니다

권정대 신부

1월 3일 (수) 오전 10:30 부산 대연동 성당

김병훈 신부

1월 15일 (월) 오전 10:30 서울 한남동 수도원

수도회 이름으로 성모기사회 신규통장을 개설했습니다

많은 회원께서 건의해주셔서 수도회 이름으로 신규통장을 개설했습니다. 자동이체 원하시는 회원께서는 다음 계좌 중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사무실(02-745-6134)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규통장 계좌번호

예금주 : (재) 천주교 꼰벤뚜알 프란치스코 수도회

국　민 : 031601-04-200636

우　리 : 1005-803-349775

신　한 : 140-012-038430

하　나 : 274-910011-99204

● 기존통장 계좌번호

예금주 : (재) 천주교 꼰벤뚜알 프란치스코 수도회

농　협 : 317-0007-3146-21

우체국 : 102566-01-005494

미사 일정이 바뀌었습니다

부산 기장 성당에서 갖는 프란치스코의 벗 미사 시간이 둘째 주 목요일로 바뀌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신청 받습니다

연말 정산을 위한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선교후원회, 성모기사회, 성소후원회)은 사무실(02-745-6134)로 전화하셔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받습니다.
2) 매년 신청하시는 분은 작년에 신청하셨음을 말씀해주시고 성함, 연락처, 금액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3) 재속프란치스코회 서울지구 보나벤투라, 비안네, 요셉, 콜베 형제회원은 단위형제회에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4) 서울 한남동 수도원은 더 이상 기부금 영수증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성소후원회

수도회의 수도자 양성과 교육을 위해 도움을 주실 벗을 기다립니다.

● 후원 계좌 안내

예금주 : (재) 천주교 꼰벤뚜알 프란치스코 수도회
신　한 : 140-002-932457
국　민 : 026-01-0344-810
지　로 : 7620247

해외 선교 후원회

해외 선교를 위한 수도회의 역할과 사명에 함께하실 벗을 기다립니다.

● 후원 계좌 안내

예금주 : (재) 천주교 꼰벤뚜알 프란치스꼬 수도회
신　한 : 140-009-830476
농　협 : 301-0116-9633-21
국　민 : 295401-01-183491

프란치스코의 벗 미사

은인들과 관심 있는 모든 분이 함께하는
감사와 나눔의 시간입니다.

– 대 상 : 성소후원회원, 해외선교후원회원, 성모기사회원
재속프란치스코회원, 일반 신자
– 내 용 : 미사 전 칠락묵주기도와 고해성사
미사 중 프란치스칸 영성 강좌 및 양형영성체
미사 후 성인유해 축복 또는 안수기도

● 미사 안내

지 역	장 소	시 간	월모임	전 화
대 구	월배 성당	오후 7:30	둘째 화	053–636–1302
부 산	대연동 성당	오전 10:30	둘째 수	051–622–0635
	기장 성당	오후 7:30	둘째 목	051–721–2273
서 울	한남동 수도원	오전 10:30	셋째 월	02–793–2070
인 천	갈산동 성당	오전 10:00	셋째 토	032–513–4601

● 성소모임 안내

담 당 : 홍민용 알로이시오 신부
대 상 : 중학생부터 대학생, 일반인 미혼남성
남부 모임 / 대구 : 월배 수도원
053) 636–7427 (매월 둘째 토요일 오후 4시)
북부 모임 / 서울 : 한남동 프란치스코 수도원
02) 793–2070 (매월 둘째 주일 오후 2시)

성모기사회 미사 · 월모임 안내

지 역	월 모 임	시 간	장 소	연 락
대 구	첫째 토요일	오전 10:30	프란치스카눔(월배 수도원 뒤)	053-636-7427
	셋째 토요일	오후 7:00	프란치스카눔(작은 꽃모임)	
	넷째 주일	오후 2:00	월배 수도원(7080 젊은이 모임)	
대 전	둘째 토요일	오전 10:00	대흥동 성당 (1층 경당)	042-256-6562
부 산	첫째 토요일	오전 10:30	기장 성당	051-721-2273
		오전 11:00	대연동 성당	051-622-0635
	첫째 주일	오후 12:00	대연동 성당(작은 꽃모임)	051-622-0656
부 천	셋째 토요일	오전 10:00	중1동 성당	032-325-0342
서 울	첫째 토요일	오전 10:30	한남동 수도원	02-793-2070
수원 · 안양	넷째 토요일	오전 10:00	매교동 성당	031-233-7185
양 평	첫째 토요일	오전 11:00	양평 수도원	031-771-6134
인 천	첫째 토요일	오전 10:00	갈산동 성당	032-513-4601
전 주	첫째 토요일	오전 10:30	효자동 성당	063-223-3821
		오후 7:00	효자동 성당(작은 꽃모임)	
제 주	첫째 주일	오후 12:00	광양 성당	064-753-4498
	첫째 토요일	오후 5:30	동문 성당	064-757-8866
미 국	첫째 토요일	오전 10:30	토랜스 성프란치스코 한인성당	1-310-380-4647
호 주	둘째 화요일	오전 11:30	멜버른 한인성당	61-422-673-889

※고해성사 및 묵주기도는 미사 30분 전부터 있습니다.

● 후원금 안내

이 책은 회원들의 후원금으로 만들어지는 순수 종교 잡지입니다. 학교, 병원, 회사, 복지 시설 등으로 무료 배포되며, 매월 첫째 주 토요일에는 모든 회원과 봉사자들을 위한 미사와 기도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 지로번호

7529076

● 자동이체 할 때 (사무실로 확인전화 부탁드려요)

예금주 : (재) 천주교 꼰벤뚜알 프란치스코 수도회
국 민 : 031601-04-200636
농 협 : 317-0007-3146-21
신 한 : 140-012-038430
우 리 : 1005-803-349775
우체국 : 102566-01-005494
하 나 : 274-910011-992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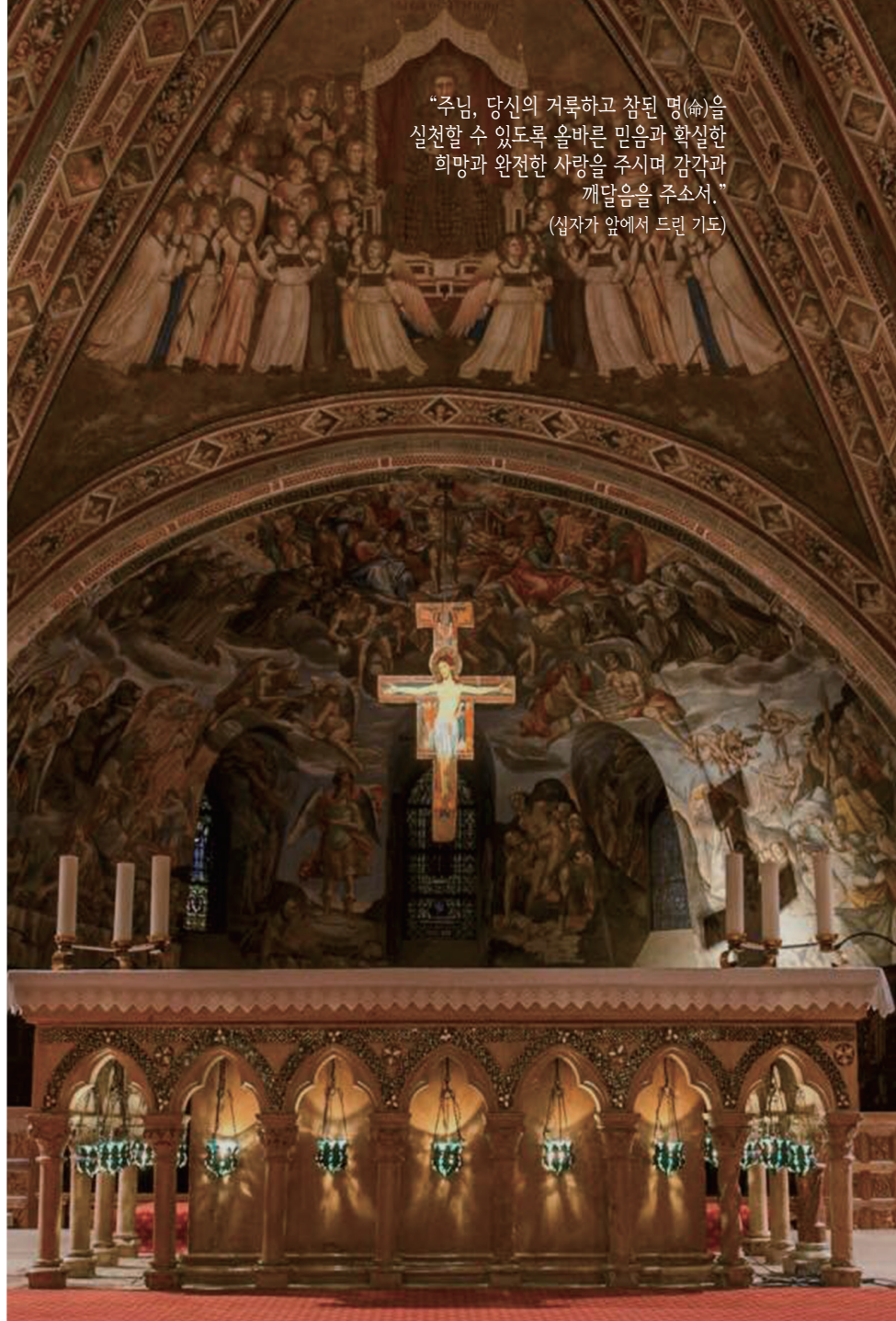
● 해외에서 송금할때

Bank Name(은행명) : Hana Bank
SWIFT CODE : KOEXKRSE
Address(주소) : Seoul Korea
Account(계좌번호) : 274-910011-99204
Beneficiary(수취인) : Order of Friars Minor Conventual

성모님의 마음을 담은
성모기사

등록번호 : 경기 라 00521
2018년 1월 통권 492호

발 행 인 : 정진철
편 집 인 : 구원모
편 집 장 : 윤지영
편집위원 : 이상태, 이유리, 정영란, 한규희, 황재민
편　　집 : 기획 – 김영태, 안춘옥
　　사진 – 이신형
인　　쇄 : 명　조
발 행 처 : 재단법인 꼰벤뚜알 프란치스코회
　　성모기사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혜화로6가길 35
　　(구 : 서울특별시 종로구 혜화동 5-92)
　　우편번호: 03067
전　　화 : 02-745-6134 (사무실)
팩　　스 : 02-745-6135
홈페이지 : ofmconv.or.kr
전자우편 : mikorea@catholic.or.kr



"주님, 당신의 거룩하고 참된 명(命)을
실천할 수 있도록 올바른 믿음과 확실한
희망과 완전한 사랑을 주시며 감각과
깨달음을 주소서."
(십자가 앞에서 드린 기도)

등록번호 경기 라 00521 / 재단법인 꼰벤뚜알 프란치스코 성모기사회 / Tel : 02-745-6134 / FAX : 02-745-6135 / 발행일 2018. 1. 1. / 통권 제492호

원죄 없으신 성모의 기사회

"마리아처럼 마리아를 통해 마리아 안에서, 마리아와 함께"